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1월 19일
제2036호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 2,11)



<조토 디 본도네>, 카나의 혼인잔치

연중 제2주일 (다해)

제 1 독 서 이사 62,1-5 |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화 답 송 시편 96(95) |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 2 독 서 1코린 12,4-11 |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복 음 요한 2,1-11 |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부임 인사 | 제11대 보좌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신부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마태 8,8)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백인대장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12월 26일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보좌신부로 새로 부임한 양종욱 대건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어떤 인사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 서품성구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저에 대해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서품을 받았습니다. 부제품을 받기 직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아 휴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학기간 동안 일을 하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정작 하려던 고민은 못했기에 복학하고 기도 안에서 다시 고민해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학하고 나서도 미뤄둔 공부와 논문에 집중하다 보니 또 정신없이 한 학기가 흘러 어느덧 부제품을 받기 위한 대품피정이 다가왔습니다.

대품피정 첫날 밤 성체조배를 하러 성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미뤄두었던 말들을 예수님

앞에서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그토록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대체 뭐하고 계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토로한 후에, 늘 하던대로 다음 날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 대품피정 첫날 기도드렸던 마태복음 8,5-11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인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종을 낮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저는 ‘백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의 입장에서 보면, 중풍으로 인해 몹시 괴롭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의 곁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고, 사랑하는 그의 주인 백인대장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인대장은 길 위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위해 간곡히 빌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길 위에서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많은 교우분들이, 심지어는 저랑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2025년 하반기 희망의 순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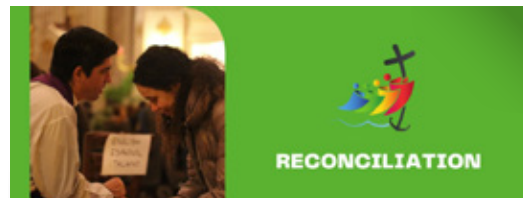
모르는 분들도 저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주었고, 또 예수님께서서는 그 교우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음을 기도 안에서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에 대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백인대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에 대한 감사함과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인 이 결심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백인대장의 기도인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제 서품성구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곳에서도 그 마음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쌓았던 좋은 추억으로 인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전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청소년단체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교우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 본당의 청소년·청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기쁨을 선물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서품성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사제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런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희년의 표징들 (2) 화해

희년은 화해의 표징이다. 희년이 **회개**를 위한 “**은혜로운 때**”(2코린 6,2)를 열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느님께서 최우선이심을 인정하도록 부름받았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회 정의의 회복과 지구에 대한 존중도 신학적 실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하느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라면, 모든 현실과 파벌에 따른 이해관계보다 하느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므로써 이 해를 거룩하게 하신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화해는, 화해의 성사를 받고, 이때를 활용하여 고해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하느님의 용서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언제나 화해의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 놓는 일부 희년 성당들이 있고, 우리는 안내에 따라 고해성사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1 2차 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에는 어려운 이웃 본당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1월 26일) 미사 중에 Church in Latin America(라틴 아메리카 교회)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30 (A-1,2,3,4)
- 안나회 월례 모임 후 노인 아파트로 가는 셔틀버스가 성당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B-4,5)

5 베드로회 월례 모임

- 일시 : 1월 19일(일) 오후 1시 (B-1,2)

6 2024년 교무금 납부 안내

- 2024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25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1월 3일(금)에 발송했습니다. 납부 금액이 다르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교우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일시 : 1월 24일(금) 오전 11시 미사, 오후 12시 성당 출발 (점심 제공)
-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까지 행진합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1월 19일까지(친교실, 사무실) 선착순 55명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 376-1372
- ※ 당일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8 울뜨레아 회합

- 일시 : 1월 24일(금) 오후 8시 (A-1,2,3)

9 주임 신부님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 미사 / 기도 봉헌

- 일시 : 1월 25일(토) 10시 30분 미사, 축하식 (이 날은 새벽 6시 미사가 없습니다.)
- 1월 25일(토)은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의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 날입니다. 착한 목자를 닮아 살아가려는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주보대에 비치된 영적 예물 용지를 1월 22일(수)까지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0 요한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1)

11 루카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2,3)

12 설 합동 위령 미사

- 1월 29일(수)은 설날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자매, 친척, 은인분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시 40분부터 연도를 바치고 가족별로 나오셔서 절을 드리겠습니다. 미사는 7시 30분에 봉헌됩니다.

13 2025년 동계 성경학교 워크샵

- 대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전 신자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 오후 3시 (점심 제공)
- 등록 : 1월 20일(월)까지 교육부로 신청
- 내용 : 강의 / 주제발표 / 체험담 / 친교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자세한 정보는 아래 QR코드 스캔



14 성당 주차장 접촉 사고 안내

- 성당 주차장에서 잦은 주차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 메모**를 남겨 주시고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다음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가시는 것은 뽕소니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자신과 남을 외면해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2025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25일(토)

교회는 매년 1월 18일부터 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인 1월 25일까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으로 보냅니다. 2025년 일치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열을 넘어 일치를 향한 길은 험하지만, 희망을 간직한 자만이 고통을 견뎌낼 용기가 있으며,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희망(작가 한강)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이 주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지침

- ① 질병이나 악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 참여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 ②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하상관 체육관 사용도 이에 따른다. (www.fcps.edu 참조)
- ③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악천후로 인해 미사 참여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 참여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④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교종미사 예물봉헌

01/19 이번 주	페어팩스 3-3구역
01/26 다음 주	라우던 1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월 12일(주님 세례 축일)

봉헌금	\$ 8,970.00
교무금	\$ 10,157.00
교무금(신용카드)	\$ 3,010.00
감사 헌금	\$ 250.00
온라인 봉헌	\$ 1,880.00
합계	\$ 24,26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5년 1월 16일(목) 오후 5:00 - 6:00
- 2025년 1월 17일(금) 저녁 8:00 - 9:00
- 2025년 1월 1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둘째특강: "제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 가경영 신부 (미래내 천주성삼성직 수도회)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종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th> <th>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